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현황과 실태

창동,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culture | art

작업실 정책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 교육정책 그리고 미술계 내부, 국민의 문화수준 전반의 성숙도와 맞물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맞춰가며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수준 높은 지원책 마련과 동시에 국제 미술계와의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확실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날카롭게 계산해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조주현

국립 창동미술스튜디오 프로그램매니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중요성

'이동 (Mobility)'의 개념이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업 성향에 있어 두드러진 특성으로 자리 잡으며 현대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그 역할이 부상되었다. 지금, 많은 작가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은 '창작의 터전'을 넘어선, '삶의 방식' 또는 작업의 '행위'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되짚어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작업 공간 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 운영하는 체제는 그 형태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럽인들의 전통을 많이 닮아 있다. 식민지 국가의 문화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 피지배국의 학자와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함께 연구하도록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자국의 문화를 더욱 번영토록 했던 간접적이면서도 치밀한 의도를 내포한 문화 교류가 21세기 글로벌 문화지형을 생성하는 데 새로운 관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과 민간단체 위주의 다양한 차원으로 조직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유럽, 발칸, 일본 등을 비롯한 문화적으로 가장자리에 존재했던 지역들에서 AIR(Artist-In-Residence)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의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게 된다.

국내에서는 1998년 문예진흥원에서 논산과 강화 두 곳의 창작스튜디오를 조성·운영한 이후, 2002년 창동 미술스튜디오가 개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의 작업공간 지원정책, 더불어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도입에 관한 담론

들이 관심 있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이러한 시스템에 관한 미술계 안팎의 '인식 부족'은 뜨거운 관심과 의의 과정을 통해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올랐으며 어느 정도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과 지원조건의 다양성, 운영 전문인력 부족과 같은 현실적 여건의 한계 등은 아직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매년 철저한 점검과 검토를 바탕으로 운영규정의 일부와 시설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우리에게 다소 새로운 전통의 이 시스템을 운영하며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단시간 내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 교육정책 그리고 미술계 내부, 국민의 문화수준 전반의 성숙도와 맞물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맞춰가며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수준 높은 지원책 마련과 동시에 국제 미술계와의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확실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날카롭게

외국작가 입주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수준 높은 외국작가를 유치해 국제미술계의 흐름은 물론 우리의 현대미술을 효과적으로 소개, 보다 넓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다.

계산해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본 원고에서는 국립 미술창작스튜디오인 창동과 고양스튜디오의 현황과 실태를 몇 가지 주요 현안 위주로 살펴보고 간략히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입주작가 선정

매년 눈에 띄게 치솟는 선발 경쟁률이 반영하듯,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로서의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수상(award)의 개념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실제로 그 선발기준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입주작가 선정은 사실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기대치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인 만큼 국내외 젊고 유망한 작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명성 있는 국제 프로그램일 수록 합리적인 선발기준과 까다로운 선발절차를 갖는데, 이는 정형화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각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기준과 선정방식을 취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 필요에 의해서는 2차, 3차의 면접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 여건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최상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작가를 선택한다. 우리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포함한 내부인사 3인과 미술계 주요인사 4인으로 구성되는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입주작가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과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작업내용의 충실성 및 가능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지닌 스튜디오로서

창동 미술스튜디오 전경





고양 미술스튜디오 로비

입주기간 작업실 이용도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는 차기 입주작가 선발부터 단기 입주율의 확대와 입주기간 프로젝트 계획의 구체성 검토 등으로 보완하여 유연성을 가미할 계획이다.

1) 입주작가 장르, 분야별 분포 현황

창동 1기부터 현 고양 1기, 창동 3기까지의 입주작가 장르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소 전통적인 장르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사진 및 영상 등 미디어 장르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였다. 많은 예술가들이 학제적 또는 혼합 장르의 작업을 주로 하기 시작하며 장르의 구분이 모호해진 지 오래지만, 입주기간 작가들의 작업 성향 변화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입장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입주작가들의 작업이 실제로 많은 부분 입주기간 다른 매체의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타 장르를 실험해 보고 변화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시각예술 전 분야에 걸쳐 건축, 디자인, 만화 등 장르의 폭을 더욱 넓히고 다양화한다면, 젊은 작가들에게 또 다른 시야를 제공하고 새로운 충격과 흡수, 정제의 과정을 통해 우리 현대미술의 내용과 형식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정 프로그램으로 장치를 마련하여 시각예술과 타 분야의 학제간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는 독립된 장르로 생산성을 갖지 못하는 시각예술 분야의 한계를 보완하여 문화산업 및 경제, 비즈니스 분야로 그 특수성을 확대,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독일의 아카데미 솔로스 솔리튜드(Akademie Schloss Solitude)의 'art, science & business' 프로그램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젊고 유망한 자연과학, 법학, 인문학 종사자와 사업가, 매니저 등 비즈니스 계통 종사자를 초청하여 매년 특정 프로젝트를 예술가들과 함께 진행하며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외국작가 입주 및 국제교류

2004년부터 창동스튜디오는 단기입주 4명과 장기입주 1명의 외국작가를 선발하여 거주 전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창동에 입주하고 있는 외국작가들의 경우, 국내 미술계와의 교류, 입주작가들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드러난다. 또한 국내 주요 갤러리와 미술관 관계자를 작업실로 초청하여 작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입주가 끝난 후 다시 국내 전시에 초청되어 방문하게 되거나 단기 외국작가가 본국에 돌아간 후, 해외 전시에 함께 입주했던 국내작가를 초청하는 사례도 있다. 바로 이러한 교류는 국내 입주작가들에게 활력적인 분위기와 긴장감을 조성하며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

외국작가 입주 프로그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준 높은 외국작가를 유치해 국내작가들이 국제미술계의 흐름을 접할 수 있고 우리의 현대미술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으며, 보다 넓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다. 현재 국립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전세계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Res Artis와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입주작가 선발 및 국제교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식을 유럽, 미주, 아시아 각국에 알리고 활발한 교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창동과 고양 미술스튜디오에서는 동북아 미술의

전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소규모 작가운영 창작촌들은 대부분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경험한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형성, 그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간다.

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가며 향후 아시아 미술의 중심 거점으로 역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시아 작가 지원 프로그램' (Asian Artists Fellowship Program)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문화정책과 큰 틀이 맞물려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아시아 내 국가적 차원의 스튜디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가 드물어 창동과 고양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원방식

1) 전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지원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대략 전문적인 작업환경 제공, 전문 프로그램의 지원, 개별 입주작가 관리 및 프로모션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국립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그 시설과 규모 면에서 상당히 편리한 작업 공간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전문 공방 시설의 부족으로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미디어 영상, 편집 프로그램 및 오디오 설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사진, 영상 설치작가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바탕으로 향후 입주작가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미디어 랩'으로 발전 가능하다. 한편, 입주작가 프로모션과 작업 역량 개발 및 프리젠테이션에 따른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 공동 워크숍, 작가 연구 세미나,

〈표 1〉 창동&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장르별 입주작가 현황 (2005년 3월 기준)

기수	창동1기		창동2기		창동3기		고양1기		누계/총계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회화, 판화	5	35.7	3	21.5	7	33.3	12	54.5	27	38.0
조각, 설치	6	42.8	6	42.8	9	42.9	6	27.3	27	38.0
사진	0	0	1	7.1	2	9.5	1	4.5	4	5.6
영상	0	0	2	14.3	0	0	1	4.5	3	4.2
기타(혼합장르)	3	21.5	2	14.3	3	14.3	2	9.2	10	14.2
총계	14	100	14	100	21	100	22	100	71	100

전문가와의 대화, 오픈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미술비평가, 큐레이터 등 국내 미술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입주작가들로 하여금 국제 미술계 진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상호 호혜 조건으로 유럽, 아시아 등 주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관들과 국제 교환입주를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최근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기본적으로 작업실, 숙소, 생활비, 재료비 등을 지원받으며 행정서비스 및 프로모션 등과 함께 전반적인 작업환경을 제공받는 경



고양 미술스튜디오 전경

우가 크게 늘어난 추세이다. 하지만 지원의 사례는 아직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의 199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걸쳐 78개 기관의 조사 결과 28개 기관에서 입주비를 받고 있으며, 29개 기관에서 얼마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총 50기관에서 최소한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 'The Programs & Management Practices',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 Oregon, U.S.A, 1999, pp. Table 18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Vermont Studio Center), 아틀란틱 센터(Atlantic Center for the Arts) 등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월 평균 150-200만 원(1,300/mo.)의 입주비를 작가가 기관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는 모든 식사를 포함하여 숙소, 매체별 전문 작업공간과 재료 등을 지원한다. 물론, 이 경우 작가 본인이 감당하기보다 각국의 문화부, 재단, 기업 등의 파트너 기관에서 엄선된 작가에 한하여 장학기금을 지원하도록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 프로그램 AIR-Bundeskanzleramt-Vienna을 비롯한 유럽의 국공립 스튜디오의 경우, 재정 지원 없이 스튜디오, 숙소를 포

함한 공간지원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본국에서 장학금을 받아오도록 제한된다. 그러나 제3세계 또는 자국에서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작가들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이 따르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라익스 아카데미(Rijksakademie)는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가는 기관에 입주비를 연간 1,570유로(약 300만 원) 정도 지불하며, 네덜란드 정부에서 일정액(9,500유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재단, 기업 등에서 스폰서를 받아 절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입주비를 비롯한 모든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자체로 어느 정도의 장학기금(Grant)의 개념을 대체하고 있으며, 전시를 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이 지원된다.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국제교환입주와 아시아 작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재단이나 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을 유도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운영인력

대부분의 국공립 미술창작스튜디오가 단순한 공간지원 차원에 머물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창동과 고양스튜디오

오는 각 1명의 시설관리팀장과 프로그램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으며, 각 1명의 인턴이 보조 인력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며 점차 더욱 세분화된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에서 조사된 스튜디오 전문 인력에 관한 타이틀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대다수 스튜디오가 고용하고 있는 직책으로 관장, 레지던스 프로그램 디렉터, 재정 회계 디렉터, 홍보 마케팅 디렉터, 행정 어시스턴트, 시설관리인력, 전문기술 테크니션, (장학)기금 매니저, 그 밖에 기타 부디렉터,

위 · 고양 미술스튜디오 작업실
아래 · 창동 미술스튜디오에서의 이벤트 광경



레지던스 코디네이터, 아트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전시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도서관 사서 등이 있다.

네덜란드의 라익스 아카데미(Rijksakademie)의 경우, 매년 60명의 작가가 입주하는데 11명의 매체별 전문 테크니션을 보유하고 작가들의 기금 조달 담당인원 및 세계 각국의 동창모임을 관리하는 인원, 도서관, 출판 담당 등 총 55명의 직원이 관장 이하 각 파트별로 조직화되어 있다. 아직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 스튜디오에서 위와 같은 조직과 인력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입주작가들의 실질적인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매체별 전문 테크니션의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자원봉사 및 파트타임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글을 맺으며

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은 24시간 가동된다. 그만큼 생산적인 공간이다. 전세계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소규모 작가운영 창작촌들은 대부분 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경험한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또 다른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간다.

일본의 국제행사 프로듀서 기타모토 마사타케(北本正武)는 20세기의 키워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즉 '교류'였다면 21세기는 '감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주장한다. 즐거움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들고, 그곳의 문화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전략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현대미술이 세계화되고, 지방의 특수한 문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조직하는 일에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시스템보다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입주작가들 사이의 교감을 이끌어 내는 일, 그리고 행복한 경험이 바로 첫 시작일 것이다. 🍷